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월 15일

CUOMO 주지사, 항소법원을 위한 지명자 발표

주지사는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CUNY 로스쿨 교수인 Jenny Rivera를 지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시립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Jenny Rivera를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지명하였습니다.

뉴욕주 태생으로서 오랫동안 Bronx에 거주해 온 Rivera 교수는 공직에서 길고도 성공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법률구조회의 변호사로서, 푸에르토리코인 법적방어교육기금(Latino Justice PRLDEF로 개명)의 변호사로서 많은 다양한 직위를 거쳤으며 뉴욕남부지구 미국지방법원에서 Sonia Sotomayor 법관의 법률 서기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NYC 인권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2007년에 그녀는 뉴욕주 Andrew Cuomo 검찰총장실에 민권 담당 특별차장으로 합류하였습니다.

"그녀의 경력 전체를 통해 Rivera 교수는 모든 뉴요커들의 법적 권리를 방어하고 우리 주를 살기에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해 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로서 Rivera 교수의 법률 지식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열정은 모든 뉴요커들을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오늘 그녀의 지명을 상원에 자랑스럽게 보냅니다."

Rivera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Cuomo 지사에 의해 지명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평생 뉴요커로서 이 지명은 제가 뉴욕 주민들을 계속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항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뉴욕주 법률을 지키고 공정성과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며 본인은 이 기회를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Rivera 교수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직업인종민족다양성위원회로부터 Spirit of Excellence상을 받을 것입니다. 2012년에 그녀는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의 Diversity Trailblazer 업적상을 받았고, 2011년에는 NYSBA Kay Crawford Murray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프린스튼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그리고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Nydia Velazq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Jenny Rivera가 지명된 것은 모든 뉴요커들에게 희소식입니다. Rivera 교수는 진정한 공복이며 그녀의 전경력을 정의와 공정성을 위한 강력하고 헌신된 옹호자로서 보내었습니다. 그녀의 법률 지식,

재능과 광범위한 경험은 항소법원에서 매우 소중할 것이며, 본인은 이 지명을 하신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변호사협회 회장인 Seymour W. James,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Jenny Rivera는 항소법원에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 통찰력 있는 법률적 학식과 모든 뉴요커를 위한 평등 정의에 대한 집념을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주변호사협회는 그녀를 그 직위에 훌륭한 자격자로 평가하였습니다. 2012년에 그녀는 우리 협회의Diversity Trailblazer 평생 업적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우리의 Kay Crawford Murray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직업적 성취는 2월에 미국변호사협회의 유명한Spirit of Excellence상으로 다시 한 번 표창될 것입니다.”

전국히스패닉변호사협회의 회장인 Peter M. Reyes,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Jenny Rivera를 지명함으로써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가장 날카로운 법조인 중 한 명을 주 최고의 법원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Rivera 교수의 자격, 평생 공직 헌신과 법학자 및 중립적 옹호자로서의 평판은 그녀를 항소법원을 위한 올바른 선택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하신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인변호사협회 회장 Elena Goldberg Velazq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주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Jenny Rivera를 지명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Rivera 교수는 뉴욕주의 가장 재능있는 법조인 중 한 분으로서 이 지명으로 Cuomo 지사는 비범한 자격을 갖춘 라틴계 여성을 뉴욕주 최고 법원에 지명하고 있습니다. Rivera 교수는 푸에르토리코인변호사협회의 가장 적극적이고 오랜 회원 중 한 분인데 우리는 그녀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경력 전체를 통해 Rivera 교수는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모든 뉴요커들은 공정성을 위한 그녀의 목소리와 헌신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뉴욕시립대학교 총장 Matthew Gold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높이 평가 받는 학자이자 교사인 CUNY 로스쿨 교수 Jenny Rivera의 고무적인 지명에 대해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Rivera 교수는 뉴욕주 항소법원에 인상적인 폭의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시립대학교의 전체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본인은 우리의 가장 따뜻한 축하를 드립니다.”

CUNY 로스쿨 학장 겸 법학교수인 Michelle J.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률에 대한 Rivera 교수의 깊은 이해와 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품과 진실성으로 인해 그녀는 주의 최고법원에서 뉴요커를 섬기기 위한 이상적 선택이 됩니다. CUNY 로스쿨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수 년 동안 Rivera 교수는 타인을 위한 봉사를 무엇보다 앞세운 사람의 역할 모델 겸 모범이었으며 평등, 정의 및 공정성을 위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가 한 모든 일에서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는 Rivera 교수를 항소법원에 지명한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신속한 비준을 기대합니다.”

뉴욕대학교 총장인 John Sex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U 로스쿨을 1995년에 졸업한 Jenny Rivera 교수가 지명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그녀는 우리 로스쿨에서 Root Tilden 장학생이었으며 Sonya Sotomayor 법관의 전 법률 서기였습니다. 저는 NYU에서 Jenny가 제가

담당한 Root Tilden 장학 프로그램의 학생이었을 때부터 그녀를 알았습니다. 그 때를 돌아보면 Rivera 교수는 일급 지성과 깊은 동정심을 소유한 인상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Rivera 교수는 우수한 변호사요 민권과 사회 정의의 옹호자였으며 많은 때에 헌신적인 공복이었습니다. 인준되어 항소법원 판사로서 뉴욕항소법원에 그녀가 합류하면 정의를 위해 우리 법원들을 바라보는 사람뿐만 이 주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NYU는 우수한 선택에 대해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내며 Rivera 교수와 그 가족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